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영 근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감성지능 계발을 위한
중학교 미술교육 방안

- 자아와 타인, 사회와의 소통을 중심으로 -

201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이 예 소 담

감성지능 계발을 위한 중학교 미술교육 방안

- 자아와 타인, 사회와의 소통을 중심으로 -

박 영 근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이 예 소 담

인 준 서

이 예 소 담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디지털 시대에 나타날 문제점을 자연환경의 파괴와 재앙, 가정 기능 상실과 사회 해체, 사이버 중독과 사회 부적응의 문제, 사이버 테러와 통제 불능의 위기, 인간 존엄성의 상실과 가치관의 위기라고 본다면, 이를 대비하여 미술교육을 통한 감성교육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순화하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술은 감성지능의 감수성이나 정서와 직결되고, 우뇌의 공간 지각력이나 형태력, 직관력, 창의력 등과 직결되는 교과이기 때문에 감성지능을 계발하는 아주 효율적인 교과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술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정서지능,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론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론에서 현행 미술교육의 이해와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방법으로서 감성지능의 주요개념과 미술과 감성지능의 관계, 감성지능이 미술교육에 주는 의미를 설명하였고, 그에 따른 감성지능 계발을 위한 미술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미술수업모형은 자아정체성 탐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타인과 사회와의 소통을 중심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자아정체성 프로그램과 타인과 사회와의 소통 프로그램의 목적은 모두 인간회복을 공통점으로 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병폐로 자아와 타인, 사회와의 단절을 문제로 보고, 미술활동을 통해 소통한다는 점이 같은 맥락으로 흐른다.

자아정체성 프로그램으로는 <마음의 상자 열기>, <낙서상징화>, <사물로 자아 표현하기>, <몸으로 표현하기>, <나의 이미지북 만들기>가 있다. 타인과 사회와의 소통 프로그램으로는 <포토콜라주>, <얼굴이야기-가면>, <공간속에서 함께 말하기>, <여성과 몸>, <다양한 문화 이해하기>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동성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직

접 연구수업을 진행하였다. 자아정체성 프로그램으로는 <마음의 상자열기>와 타인과 사회와의 소통프로그램으로는 <포토콜라주>를 수업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조사와 문헌연구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설계를 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실제 적용하였으나 본인의 연구로 장기적으로 기대효과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그러나 감성지능을 계발한 미술교육은 감성능력을 계발시켜 인간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감성지능을 활용한 미술활동이 정서순화에 영향을 주고, 시각문화의 문제점을 끌어내어 그것의 해결방법으로서의 미술교육과정은 무엇인가를 시발점으로 해서 연구한다. 특히 자아정체성과 사회와의 소통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 본인의 관심사이다. 미술교육의 치유성이 있는 만큼 그것을 활용하여 방황하는 청소년기에 자아의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미술교육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프로그램들이 향후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더욱 정교하게 수렴되어 감성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를 기대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II. 현행 중학교 미술교육의 실태	3
1. 현행 중학교 미술교육의 이해	3
1) 2009 개정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해설	3
2) 미술과 교육과정 성격	5
3) 미술과 교육과정 목표 및 내용	6
2. 현행 중학교 미술교육의 문제점	9
1) 미술교과서의 문제점	9
2)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	11
3. 현행 중학교 미술교육의 개선방안	15
1) 정체성의 탐구	15
2) 사회와의 소통	18
III. 감성지능과 미술교육	21
1. 감성지능의 개념과 중요성	20
1) 감성지능의 개념	20
2) 감성지능의 주요 능력	23
3) 감성지능의 중요성	25

2. 감성지능이 미술교육에 주는 의미	27
1) 미술교육에서의 감성교육의 필요성	27
2) 감성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	28
3) 미술활동을 통한 감성교육	30
4) 미술을 통한 감성지능 계발	32
IV. 미술수업 모형제시	35
1. 프로그램의 기본방향	35
2. 프로그램의 제시	35
V. 분석 및 해석	56
1. 연구방향	56
2. 자아정체성 프로그램	57
3. 타인과 사회와의 소통 프로그램	66
VI. 결론	76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마음의 상자 열기 학습지도안	36
<표 2> 사물로 자아표현하기 학습지도안	38
<표 3> 낙서상징화 학습지도안	40
<표 4> 몸으로 표현하기 학습지도안	43
<표 5> 나의 이미지 북 만들기 학습지도안	44
<표 6> 포토콜라주 학습지도안	46
<표 7> 얼굴이야기-가면 학습지도안	48
<표 8> 공간속에서 함께 말하기 학습지도안	50
<표 9> 여성과 몸 학습지도안	52
<표 10> 다양한 문화 이해하기 학습지도안	54
<표 11> 마음의 상자 열기 자기평가서	58
<표 12> 감정표현 워크시트	59
<표 13> 포토콜라주 자기평가서	66

그림 목 차

<그림 1> 마음의 상자열기 자기평가서 통계분석	60
<그림 2> 포토콜라주 자기평가서 통계분석	67
<그림 3> 감정표현 학생작품	62
<그림 4> 마음의 상자열기 학생작품	63
<그림 5> 포토콜라주 학생작품	70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상업적 목적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시각문화 양상과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각문화의 발전은 현재 청소년이 이를 활용하므로 오는 문제점 또한 그 심각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에 따른 그 방안이 연구되어 청소년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되어가는 등 시각문화에서 오는 폐해를 막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강한 시각문화를 형성해 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교육이 그 동안 감성적인 측면에 대하여 소홀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인지적 능력을 강조함에 따라 다른 능력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고 결국 전인적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성 회복과 인간중심 교육의 형태로서 정서적 능력의 발달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감성지능이 중요하고, 교육에서도 아주 필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감이 있으며 더욱이 미술은 감성지능을 아주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가 아주 미흡한 형편에 있다.

감성지능은 다른 교육방법이나 생활 속에서 길러지기도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미술이다. 미술은 감정, 정서의 문제와 직결되며 인간 내면의 자유로운 표출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술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정서지능, 감성지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감성지능이 무엇인지, 강성지능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지, 미술을 통해 어떻게 계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해 시각문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감성지능을 미술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계발하여 제시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시각문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II. 현행 중학교 미술교육의 실태

1. 현행 중학교 미술교육의 이해

1) 2009 개정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해설

제 7차 교육과정은 미술과의 경우 1997년 12월 31일 고시된 이후 200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초, 중, 고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실시하였다. 그리고 제 7차 교육과정 자체에 관한 연구와 평가가 이루어지고 운영되면서 문제점 지적 및 개선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연구가 제기 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2월 23일 새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국가 교육과정은 보다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학교 교육전반을 이끌기 위하여 207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를 전후로 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사회 변화의 주기가 급속도로 단축되고 다양한 이해 집단의 교육적 요구가 발생하는 시대에 이러한 교육적 요구들을 반영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정 체제로서 부분·수정 개정 체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 반영·보완하여 2009년 12월 27일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의 육성·이라는 시대적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 새로운 중학교 통합 미술 교과서를 발간, 중학교 1학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9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은 2007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이 미처 시행되기 전에 다시 새롭게 개정되어 고시가 되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 사유로 “첫째, 학교 현장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미술 교육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명료화한다. 둘째, 학습자에게 필요한 문화적 소양 능력

과 정보화 사회의 시각 문화에 대한 인식 능력을 길러주기 위함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하는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 첫째, 미적 인식 능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 둘째, 시각 문화에 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 셋째, 교육과정을 명료화 한다.
- 넷째, 미술 교과 내외의 통합적 활동을 수용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구체화된 내용을 체계화하였는데 먼저, 미적 인식 능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조형감각의 습득과 조형 언어의 이해를 위한 학교 급별 표현 영역 목표와 내용을 설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 미적체험, 표현, 감상과 관련된 미술 학습을 실제 생활환경과 관련시킴으로써 미술의 소통과 사회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시각문화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식을 통하여 미적 안목을 형성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각문화에 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상 정보 및 영상 문화 중심의 시각 환경을 학습 경험으로 구성하고 조직하여야 하며 미적 체험의 내용 요소에 ‘시각 문화 환경과 미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을 명료화하기 위해서는 학년 군별 목표로 구분하여 지도방향을 안내하여야 하고 내용 영역별로 중복되지 않는 내용 요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교수·학습방법, 평가 항목에 세부적인 하부 항목을 제시하여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 역시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술 교과 내외의 통합적 활동을 수용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다양

1) 교육과학기술부 (제 2009-41호).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미술과 교육과정. pp.81-84

한 경험들을 미술 학습과 통합하여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하고 학교 미술 학습 경험과 지역 문화 공간을 연계할 수 있는 내용 요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개정 미술과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제 2009-41호)와 2007 개정 교육과정(제 2007-79호)을 참고하였다.

2) 미술과 교육과정 성격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성격은 제 7차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미술 교육의 목적을 미술이라는 교과 특성 살려 바람직한 인간의 성장을 돕는데 두고 있다. 또한,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첫째, 학교 미술 교육의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성격을 강조하여 오늘의 시대 문화적 상황을 미술 교과의 성격에 반영하였으며, 둘째, 미술의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역할의 의미를 학습자의 능력, 태도와 관련시켜 명확한 용어와 문장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어지는 미술교육의 의의와 목적은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한 문장으로 서술하던 것을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의의와 목적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제 7차 교육과정과 큰 차이가 없다. 미술교육 의의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²⁾

미술 교과 교육은 미적 감수성과 직관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시각적 조형물이 가진 아름다움을 느끼며 누릴 수 있는 심미적 태도와 표현력,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준다. 따라서 미술의 다양한 체험, 표현, 감상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나타내며 미술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목

2) 교육과학기술부 (2007).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pp.198

적이 있다.

미술 교과 교육은 주위의 시각적 대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를 세심하게 관찰하거나 바로 꿰뚫어 봄으로써 그 본질과 미적 특성을 발견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심미적 태도를 길러준다. 또한, 학습자 개인의 자유로운 상상력, 독창적인 생각, 개성적인 표현력 등을 바탕으로 시각문화에 대한 가치르라 평가하고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킨다.

미술적 능력과 태도는 학습자의 감성적, 지성적, 정서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미적 체험, 표현, 감상에 있어 유기적인 활동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길러질 수 있는데 이러한 미술의 체험, 표현, 감상 활동과 관련한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³⁾

첫째, 생활 속에서 미적 감수성과 미의식의 체험을 확대함으로써 문화적 가치와 정보, 환경, 생명 등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둘째, 다양한 동기 유발을 통해 표현 의지를 북돋아주고 주제,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재료와 용구 등의 표현 요소와 표현 계획, 수행, 반성 등의 표현 과정, 표현의 확장에 관한 체계적인 탐색과 자기 주도적인 표현 활동으로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나타내게 한다.

셋째, 미술 작품을 비롯하여 시각 문화 환경에 대한 미적 반응이나 판단을 토대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며, 문화유산을 미학적,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자긍심을 길러 전통 미술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게 한다.

3) 교육과학기술부 (2007).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pp.198

3) 미술과 교육과정 목표 및 내용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미술과 목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의 미술과 총괄목표와 내용 영역별 목표인 하위 목표, 그리고 2007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학년 군별 목표로 구성하였던 내용을 학교 급별 목표로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총괄 목표는 다음과 같다.⁴⁾

미술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미적 감수성, 창의적 표현 능력, 비평 능력을 기르고, 미술 문화를 향수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이전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괄 목표와 그 방향을 같이하며 미술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미적 감수성’, ‘창의적 표현 능력’, ‘비평 능력’, ‘미술 문화의 향수 능력과 태도’로 제시하였다. 이는 미술 교육의 정의적, 심동적, 인지적인 면들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다음으로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영역별 하위 목표로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과 관련된 3개의 하위 목표와 이를 종합하는 1개의 하위 목표로 총 4개 항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⁵⁾

가.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대상과 현상에 대한 미적 감수성을 기른다.

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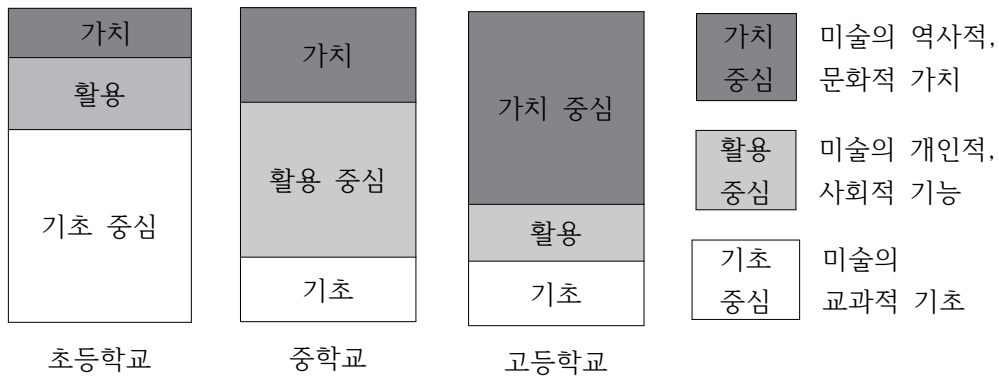
다. 미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4) 교육과학기술부 (2007).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pp. 200

5) 교육과학기술부 (2007).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pp. 201

라. 미술을 생활화하여 미술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지난 제 7차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부터 교과와 총괄 목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초등학교에서는 학년 군별,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학교 급별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목표의 수준을 차별화하였다. 학교 미술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기초 교육’, ‘활용 교육’, ‘가치 교육’의 세 가지를 제시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중점 지도 목표를 설정할 때 근거가 되도록 하였다.



〈그림 1〉 학교 미술교육의 방향과 학교 급별 중점 방향

중학교에서는 미술의 활용을 중심으로 교육하되 기초 교육과 가치 교육을 함께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⁶⁾

첫째, 생활 속에서 미술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이해한다.

둘째, 목적과 의도에 맞게 표현을 계획하고 적용한다.

셋째, 미술 작품을 맥락적으로 해석하고 미술 문화의 의미를 이해한다.

6) 교육과학기술부 (2007).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pp. 203

위의 미술과 총괄목표와 하위 목표에 따른 학교 급별 목표체계와 내용체계 또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중학교 목표 체계는 미적 체험 영역과 표현 영역, 감상 영역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우선 미적 체험 영역의 목표는 “생활 속에서 미술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이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표현 영역에서는 “목적과 의도에 맞게 표현을 계획하고 적용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감상 영역의 목표는 “미술 작품을 맥락적으로 해석하고 미술 문화의 의미를 이해한다.”이다.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은 이전의 교육과정의 비해 초·중·고등학교 연계성과 위계성을 고려하여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학습내용을 적정화하고 있으며 미적체험, 표현, 감상 영역별 내용 요소에 있어서도 보완·재구성 되어있다. 영역별 내용으로는 미적 체험 영역은 자연 환경과 시각 문화 환경, 표현 영역은 주제표현, 표현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과정이며 감상 영역은 미술 작품, 미술 문화이다.

2. 현행 중학교 미술교육의 문제점

1) 미술교과서의 문제점

현행 7차 교육과정 아래에서 제작된 교과서는 점점 개선되어 가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미술교과용 도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교과서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이다.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완성작품 위주의 교과서 내용 구성과 편집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현활동과 관련된 제작과정 및 재료, 용구의 안내자료 등을 제시하는 방향, 교과서의 동기유발의 기능을 강화하고 학습과제나 내용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성

하는 방향등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중. 고등학교에서는 감상내용과 관련하여 창의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 문제해결 능력 등을 기르면서 교과서의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도록 조사 및 탐색과제, 연구보고서 자료, 토론자료 및 과제 등을 제시하는 방향을 고려한다.

둘째, 내용 선정 및 조직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한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단원 및 주제 선정이나 조직에 한계를 드러내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표현활동 위주의 내용 구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동안 미술교육에서 노작 활동과 경험활동을 통한 창의성 신장이라는 측면과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로 인해 실제적인 제작활동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감상 영역을 다루는 시간도 적었고, 교재에서도 미술사적인 설명이나 감상 작품만을 제시하는 등 그 내용서술, 전개, 지도 방법 등에 관심이 적다. 그 동안 우리의 교수-학습 방법은 작품을 잘 만드는 일, 잘 그리는 일에 몰두하여 작품의 구조나 요소, 원리 등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학습, 표현이나 감상활동에서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는 소홀하였다. 이 또한 완성작품, 표현활동 위주의 내용구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조형의 기초 내용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실현 할 수 있도록 해주며, 감상에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 조직해야 한다.

셋째, 학습 내용이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동기 유발적인 발문, 참고 작품에 대한 설명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외국의 미술 교재에서는 학습활동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미술 교재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질문이나 토론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읽고 생각하고 감상하며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계획하고 제시해 줌으로써 보다 친절한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넷째, 학습내용과 관련된 참고 작품의 선정과 제시 방식에 문제가 있다. 참고 작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학생작품, 특히 완성 위주의 작품 선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학생들의 창조적인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용을 제시하는데 학생작품이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단순히 예시작품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작품 설명이나 작품을 보고 토론해야 할 내용, 관점 등을 제시함으로써 비평능력, 작품해석 능력을 길러 줄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어 다양하면서도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표현활동을 돕기 위해 제시한 제작 순서가 경우에 따라서는 창의성을 가로막고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작품이 완성된다 하여 제시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제작 순서는 학생들이 이해해야 할 부분이다. 어떻게 지도하느냐는 방법상의 문제이지 제시내용에서 빠져야 한다는 내용상의 논의는 아니다.

2)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

미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가고 있고 현직 교사들은 미술이라는 교과목의 특성상 효과적이니 운영을 위해서는 적어도 2-3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러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채 오히려 입시제도에 밀려 다른 교과목에 그 자리마저 내어주고 점점 더 외면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9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미술과 음악을 '예술교과(군)'으로 편성하여, 학교 재량으로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다. 즉, 학생의 선택이 아닌 학교의 결정에 의해 미술수업이 아예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즉, 학생의 선택이 아닌 학교의 결정에 의해 미술수업이 아예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기준 수업시수 272시간의

편성에 있어서 학생의 적성과 학습 능력과 선택에 따라 음악·미술의 수업시수를 달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술계열로 진로를 선택하려는 학생들에게 조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였지만, 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조형적인 표현을 위한 기능은 물론 미적체험과 감상 영역까지, 이미 오래전부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어 창의적인 미술교육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많은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이 실제 우리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반영되어 실행되고 있는가? 의구심이 든다.

미술교육은 학생의 능력, 적성, 필요,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창의력, 상상력 등을 길러주고 전통 문화를 이해하게 한다는 미술 교육의 기능에 맞게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중학교 미술교육은 “표면상은 창의성 중심의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능중심의 표현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⁷⁾, 미술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지식 위주의 교육이 중심으로 이루어져 감성을 표현하는 미술활동이 부족하여 원래의 미술의 주목적인 정서순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의 교육은 경제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교육이 경제적 발전의 필요성에 의해 발전되어 왔고, 결국 경쟁중심의 교육으로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국가의 먼 미래를 생각하였을 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학생들이 편중된 지적 교과목 중심으로 학습한다면 정서적, 심리적, 발달 면에서 문제를 가져오고 나아가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현 주입식 교육이 머리로만 키우고 마음은 메말라 버리는 아이로 자라기 쉽다. 즉 정서지능

7) 김광자, 교수·학습방법론, 서울: 학문사, 1993. p. 50.

은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절제하고 통제하며, 타인들의 감정들에 대해 예민하게 느끼고, 정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주입식 교육으로 길러진 아이는 정서지능이 낮은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자신이 하는 행동을 성찰하고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에 대한 공감 능력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능력이 바로 정서인식 능력인데, 정서인식 능력은 정서 지능의 초석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에 대한 공감 능력이 거의 발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감능력은 도덕성과도 관련이 깊은데, 다른 사람의 슬픔, 고통, 아픔 등을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이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살려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마련이다.

종종 신문에 게재되는 학생들의 폭력 행동은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정서 능력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감정이입이나 충동성 통제, 그 밖의 다른 정서적 능력을 키워야 한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가 매우 안정적이며 쾌활하고 사회적으로 걱정이나 두려움에 집착하지 않는다. 또한 책임감과 동정심이 강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며 정서표현을 적절히 하여 자신과 타인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8) 반면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정서적 표현을 잘 못한다. 또한 정서를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공감하지 못한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과 슬픔은 아랑곳없이 자신의 이익과 만족만을 취하려 한다.

이성 능력과 정서 능력은 함께 균형을 맞추어 발달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간 이성 능력에는 큰 강조를 두어왔지만 정서 능력에는 별

8) 문용린. 문용린의 정서지능 강의. 서울. 북스넷. p. 34

관심을 쏟지 못했다. 우리는 이성 능력, 즉 IQ를 측정하며 IQ를 높이고자 애써 왔고 IQ 높은 사람을 선호해왔지만, 정서 능력에 대해서는 개념조차도 제시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최근 정서 능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정서 능력을 정서 지능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서 지능은 능력이다. 능력이라는 것은 교육과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향상되고 발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적절한 방법과 내용으로 아이들을 교육하여 정서 지능이 높은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많은 수의 청소년들은 부모나 선생님이 우려할 정도로 장시간 시각문화 도구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여 이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를 정규 교육과정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 하겠다. 빠르게 변화되는 대중문화는 아직 성숙되지 않은 자아정체감의 갈등과 혼란 속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9)

디지털 시대에 나타날 문제점을 자연환경의 파괴와 재앙, 가정 기능 상실과 사회 해체, 사이버 중독과 사회 부적응의 문제, 사이버 테러와 통제 불능의 위기, 인간 존엄성의 상실과 가치관의 위기라고 본다면, 이를 대비하여 미술교육을 통한 감성교육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순화하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서의 교육을 통해 감성을 키우는 아이로 만들어야 한다.

미술 교과교육은 미적 태도와 표현력,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준다. 따라서 미술의 다양한 체험, 표현, 감상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나타내며 미술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9) 조성남. 청소년의 하위문화와 정체성. 서울. 집문당. 2003. pp. 61-80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미술교육의의와 목적과 같이 미술교육의 목적은 전인적 인간을 키우는데 있어야 한다.

3. 현행 중학교 미술교육의 개선방안

1) 정체성의 탐구

청소년기의 미술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표현에서 또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그 과정 속에서 사회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미술을 통한 사회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순화시켜 나가며 보다 발전된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콜(Cole) 박사는 청소년 미술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0)

청소년들은 그들의 정서적인 관심과 자기표현을 위한 배출구가 필요하다. 그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계속되는 변화는 필연적으로 상당한 긴장을 가져온다. 그들은 음악, 미술, 연극, 작문 같은 과목에 대한 실제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학문에서처럼 이러한 과목들은 그 과목이 바로 전공인 몇몇 청소년들과 그것이 자기표현의 수단인 많은 청소년들 사이에 뚜렷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분야에서 작품의 대상은 '재능이 없는 사람들'도 열중할 수 있도록 자기표현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존경 받아야할 것은 바로 개성이고, 미래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인간성의 특징은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은 이런 창의성과 개성을 육성하는 데 효과적인 교과 중의 하나이다. 또한 학습자가 미술을

10) 로웬펠드·브리테인.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역 (2008).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미진사. 서울. pp. 27-30

통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 상상, 감정, 정서, 성격 등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으며 미술교육은 개성 있는 표현의 장이 되어 주고, 그러한 표현을 자극하고 격려해준다.

이와 같이 미술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개인적인 측면에서 자아표현, 자기발전의 기회, 창의성 육성이라는 영향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유네스코(UNESCO)에서 정의하고 있는 예술적 기능을 통해 정리해 볼 수 있다.¹¹⁾

첫째로 미술은 발견으로서의 예술로서 작품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대해 요약하며 반영의 의미를 가진다.

둘째로 미술은 강화로서의 예술로서 작품에 대한 도전은 정서적이고 지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 자신을 강화하는 것으로 인간의 경험에 생명을 불어 넣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미술은 표현으로서의 예술로서 개성 있는 자기표현의 또 하나의 형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는 나아가 그 시대의 문화를 구별 짓게 하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미술은 미술을 통해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고 감상함으로써 미적 안목을 기르고 한편으로 표현과 이해, 감상을 통하여 즐거움과 재미를 스스로 체감하여 미술이 청소년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청량제,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 이론과 맥을 같이하여 정체성, 문화의 다원성과 상대성 등은 미술교육에서 다루게 된 중요한 문제이다. 자아에 대해서 본질적이며 근원적인 입장은 후기 구조주의에 의해 해체되고 더욱 복잡화 한다. 사회와 개인은 상호의존적이며 서로가 서로를 형성하므로 단일화된 자율적인 자아에 대해 말한

11) 최동령 (2005). 청소년기 미술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청구 논문. pp.41-48

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아는 사회적 구성물이 되며 사회적 구성은 권력, 이데올로기와 관행들에 의해 관계 지어지게 된다.¹²⁾ 정체성이란 자신에 대한 주관적 위치에 따르거나 자신이 속한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된다. 다시 말해 개인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에게 의해 인식되어지는 것에 의존하며 타인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위치 지워짐과 관련된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는 성과 생물학적·사회학적으로 규정되는 개인들에게 기대되는 역할들과 관련된다.¹³⁾ 학생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의 탐구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맥을 같이하는 시각문화미술 교육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시각문화 속에는 끝없는 욕망과 꿈, 다양한 감정이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와 함께 생산된다. 광고, 리얼리티 TV프로그램, 장난감, 어린이 대상의 영화에는 미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반영한다. 시각문화가 창출해내는 소유의 욕구와 미의 재현은 자본주의의 논리를 따라 현대인들로 하여금 끝없이 소비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삶은 달라질 수 있다고 속삭인다. 특히 외모와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시각문화는 그들의 정체성과 가치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각문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통해 학생들은 이미지를 보고 만드는 것은 모두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의미가 있음을 자각하고 자신들에게 중요한 것은 외모와 소비가 아니라 올바른 문화적 인식과 자신에 대한 탐구와 노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아의 정체성 탐구를 포함하는 감성지능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12) Atkins. D. Art in Education: Identity and Practice.2003. p. 35

13) Anderson & Milbrandt. Art for Life. 2007 p. 40

2) 사회와의 소통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세계는 급속히 글로벌, 유비쿼터스 사회로 변모하고 있으며, 놀랍게도 한국은 그 선두에 서 있다. 현대미술에서 대지미술, 퍼포먼스, 설치, 시각 문화적 실천 등으로 변모된 것은 21세기 말부터 이미지의 폭발과 기술이 시각화 되고 있는 이러한 현대사회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날마다 일상생활이 시각문화가 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되고 이러한 요소들은 여지없이 우리의 믿음과 가치,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사회가 급격히 변화해갈수록 청소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무엇보다 우선 청소년은 눈부시게 발달하는 정보기술을 가장 잘 따라갈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의 첨병이기 때문이다.

미술 교육계에서는 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시각문화와 삶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고, 이에 미술학계에서는 ‘시각적으로 생산되거나 해석한 것’, ‘창조한 기능적, 의사소통적 그리고 미적의도를 가진 모든 것’을 시각문화로 정의하고 포용하게 되면서 기존 미술을 시각문화의 하위 범주에 넣고 있다.

앞서 언급한 유네스코(UNESCO)에서 정의하고 있는 예술적 기능을 통해 미술교육이 청소년 시기에 미치는 영향과 기능을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정리해 볼 수 있다.¹⁴⁾

첫째로 미술은 기록으로서의 예술이다. 미술은 인간의 경험의 요약이자 역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이라는 자연스럽고 개인적인 기호로 기록을 만드는 것이 모든 학습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삶의 독자성과 의미를 기록하게 하며 나아가 그 시대적 문화와 나라의 역사 기록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미술교육 과정은 서양문화에서 만들어진 미술교육 과정과는 다르게 한국적인 미술교육을 추구한다. 그 결과, 한국문화의 우수성, 전통문화 그리고 미술문화를

14) 최동령 (2005). 청소년기 미술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청구 논문. pp.41-48

극도로 강조하면서 문화가 우수한 정신이 만들어 낸 산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는 일로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널리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나날이 세계화 되어가는 현대에 청소년들이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나가고 이를 통해 세계의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미술은 의사소통으로서의 예술이다.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인간은 기호를 만들어냈고 또 이 기호를 만드는 기능이 인간의 일차적 행위의 하나라고 한다면 미술은 언어의 한계를 초월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인간에게 제공한다. 미술은 하나의 의사소통 매개로서 인간의 삶과 교육에 많은 함축성을 갖게 된다. 미술교육은 다른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시각 이미지가 학습자 자신이 살고 있는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것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비평적으로 탐구해 나감으로써 결국 학습자 자신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비평적 탐구를 통해 학습자 자신이 만든 이미지와 다른 사람이 만든 이미지의 관련성을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자신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해석할 수 있게 되며 비평적 탐구 또한 궁극적으로 삶의 이해와 현실 구축을 지향한다는 것이다.¹⁵⁾ 청소년 미술교육은 예전에 없던 새로운 매체들이 쏟아져 나오며 자신의 의사를 시각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시각문화 교육을 담당하게 되고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며 비판적인 해석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사회적 시각문화를 강조하고 다문화 미술교육을 지향하는 현 미술교육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미술은 질서로서의 예술이다. 미술의 경험은 어린이에게나 어른에게나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찾아주려는 인간적인 추구의 발로이다. 그리고 인간의 형태를 만드는 힘에 자극을 주고 인간이 발전하게 될 질서를 역동적이게

15) 박정애 (2008). 의미 만들기의 미술. 시공미술. 서울. PP. 103

한다. 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의 역할은 학습자가 사회에 기여하고 잘 적응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조형 활동 경험을 통하여 창의성을 개발하고 정서를 함양하며, 건전하고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미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교과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21세기 미술교육은 당시 미술계의 경향과 맥을 같이하면서 사회·문화교육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미술교육을 통해 타인과 사회와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타인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감정이입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 이타주의, 동정심을 이끌어낸다. 또한 편파적인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그리고 인내심과 개인차에 대한 수용력을 길러준다. 이러한 능력은 점차 다원화되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 따라서 타인과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감성지능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III. 감성지능과 미술교육

1. 감성지능의 개념과 중요성

1) 감성지능의 개념

가드너의 지능 개념 중에서 대인간 지능이나 개인 내 지능은 특히 감성지능(EQ)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이어 1990년대 초 샬로비와(Peter Salovey) 존 메이어(J. Mayer)는 이러한 인간 내적인 지능, 혹은 인간 상호적인 지능이라는 용어대신에 좀 더 명확한 용어인, '감성지능(EQ)' 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이들은 “감성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 할 줄 아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조절 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감성을 이용하여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감성지능(EQ) (EmOtional Intelligence)이라는 말은 바로 이들에게서 시작되었다.

감성지능 이론을 공식화한 사람은 미국의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 피터 샬로비(P.sALOVEY)와 뉴햄프셔대학교 심리학 교수 존 메이어(J. Mayer)이다. 기존의 IQ만으로는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감성지능'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면서부터 이 이론이 시작되었다. 또한 감성지능은 대니얼 골먼(D. Goleman)에 의하여 정립된 개념으로 일반화되었고, 오래전부터 인간의 지능을 수치화한 IQ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EI보다는 EQ로 개념화 시키고, EQ라고 하는 것은 '정서지수' 또는 '감성지수' 라고 번역되며, 이것은 감성지능을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고 보고, IQ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감성지능은 감성과 지능이라는 두 요소가 결합된 개념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과 공감하며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자기 감정 상태를 인식할 줄 알고, 그 감정을 타인에게도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충동을 자제하고, 분노를 삭이며, 상황을 낙관적으로 파악할 줄 아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 개인의 정서적 안정감과 잠재적인 자신감, 미래에 대한 신념을 통해 올바른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세상의 사물과 시대의 상황을 능동적이고 낙천적으로 교감하며 대인관계는 물론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친화성과 포용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뜻한다. 감성지능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욕을 잃지 않게 하고 기분을 조절하고 고뇌 때문에 사고 능력이 방해를 받지 않게 하며 감정이입과 희망을 키워주는 능력이다.¹⁶⁾

골먼은 이러한 감성지능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자기인식이다. 감성지능의 핵심어로서 자신의 내적 상태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다. 즉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재빨리 인식하고 정확히 알아차리는 능력이다. 두 번째는 감정이입이다. 자신의 정서 체험에 의한 인식에서 시작되는 공감을 타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대리적으로 느끼는 능력으로 사회생활에서 필수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특히 타인의 어려운 처지에 공감하여 도움 줄 아는 이타적 행동의 근간이 되는 능력이며,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자기조절 능력이다. 감성지능과 관련된 자기조절은 자신의 감정을 균형감 있게 조절할 줄 안다는 것이다, 셀로비에 의하면 자기조절은 자신의 감정을 균형 있게 조절할 줄 안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대인 관계 기술이다. 대인관계기술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적절한 말로 표현할 줄 알고 상황에 맞는 행동이나 표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능

16) 대니얼 골먼, 황태호 역, 감성지능(EQ) 상. 1997. pp. 78-82

력은 자신이 느끼는 좋고 나쁜 감정을 억누르거나 과도하게 표현하지 않으며, 상황에 맞는 말과 몸짓으로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자기 동기화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마다 대처하는 태도가 다른데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이성지능 능력에 의한다기 보다는 정서지능 능력에 관계된 것이다. 그러나 감성지능은 숫자로 객관화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감성지능은 수치화할 만큼 발달된 개념이 아니다. 감성지능은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정서의 하위 영역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해서 지능지수처럼 몇 개의 하위검사 점수를 합산하여 하나의 점수로 계산하기 어렵다. 또한 EQ는 지능지수처럼 정답을 아는가 모르는가 하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느낌과 감정의 통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필 검사를 하기가 불가능하다. 더불어 이런 정서능력을 개인 간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서열화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감성지능의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관심이 집중되어야지 그것을 평가하여 지수화 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감성지수를 의미하는 EQ 보다는 감성지능(EI)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¹⁷⁾

2) 감성지능의 주요 능력

감성지능(EQ)은 다섯 가지의 주요 능력으로 구분된다.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셀로비와 메이어가 주장한 다섯 가지 능력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 다섯 가지 능력은 자기감정의 인식, 자기감정의 조절, 자기 동기부여 능력, 타인의 감정 인식, 인간관계 능력이다.

17) 전성수. 감성지능 계발을 위한 미술교육 방안. 한국초등교육. 1999. pp. 251-281

1.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으로 정서지능의 핵심이다. 자기 자신의 내면속에 일어나고 있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부단히 관찰해 나가는 자각의 과정은 내면의 감정세계를 살펴 자기 인식을 명료화해 가는 것이다. 이런 능력이 풍부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보다 적절하게 이끌어 가며 개인적 결정의 순간에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2.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자기감정의 조절과 등재로 자신의 감정을 관리, 조절하는 능력이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루어서 적절하게 발휘되도록 하는 능력은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가능하다. 자기 지각에 기초하여 자신의 느낌을 적절하게 전환하고 조절하는 능력으로 이런 능력이 풍부한 사람은 분노, 흥분, 우울, 불안을 쉽게 떨쳐 버리고 좌절과 혼돈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지만 부족한 사람은 늘 괴로운 느낌에 시달린다.

3.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능력, 잠재능력을 계발하는 능력이다. 인간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많은 사람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

4.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다.

이것은 타인과의 감정 이입 능력이다. 감정이입은 감성 자기인식이 있어야 가능한 또 다른 능력으로 인간관계 능력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 이입은 상대에게 집중하여 경청하려는 자세, 말로 표현되지 않은 생각과 감정까지도 파악하려는 노력에서부터 비롯된다.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기만 앞세우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능력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대인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상대방과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으로 인생의 구경꾼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세상살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다. 이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으로 인기, 지도력, 대인관계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능력이다. 이런 기술이 잘 발달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부드럽게 교류하는 사회적 스타이다. 18)

3) 감성지능의 중요성

감성지능의 중요성은 교육, 사회, 가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잡아가고 있다. 골먼(Daniel Goleman)의 주장은 한 인간의 정신적 능력을 IQ만으로 측정할 수 없으며 감성지능의 능력을 잘 발휘한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잘 참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학교나 사회에 잘 적응하고 인기도 높으며 모험을 즐기고

18) 대니얼 골먼, 황태호 역, 감성지능(EQ) 상. 1997. pp.95-97

자신감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좌절하고 고집이 세고 외톨이로 지내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감성지능(EQ)이 높은 아이는 대학입학시험에서도 그렇지 못한 아이보다 훨씬 높았으며, 부부싸움도 덜하고 직장에서 빠르게 승진하였다는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인간의 감정이나 사고, 판단력 등은 감성적 두뇌와 이성적 두뇌의 협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지성에 관한 오늘날의 연구는 지능과 감성이라는 진부한 이분법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지능지수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성공의 80%가 지능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과학자도 있다.¹⁹⁾ 그들은 지능이 아니라 사회적 출신 배경과 얼마간의 행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교유한 감성과 타인의 감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등에 의해 성공이 좌우된다고 말한다.

이런 감성지능의 중요성은 학교의 일등이 사회의 일등이 아니라는 데서도 증명이 되는 것이다. 아는 것이 많고 논리도 정연하면서도 문화적으로는 유치하고 도덕적으로는 천박한 인간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서를 함양하고 감성지능을 높이는 것은 교육에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우리는 IQ나 좌 뇌만을 중시하고 계발하는 교육을 해왔다. 머리는 발달했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읽거나 조절하지 못하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공중도덕은 지키지 않으며, 남의 기분 같은 것은 전혀 무시하고 오히려 친구들에게 맞아 괴로워하는 같은 반 친구를 보며 웃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다. 아는 것은 많고 논리도 정연하면서도 문화적으로는 유치하고 도덕적으로는 천박한 인간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서를 함양하고 감성지수를 높이는 것은 교육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능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과학자도 논리적 사고와 분석적 능력에

19) 매틴과 뷁, 홍명희 역, 감성지능(EQ), 서울: 해냄, 1996, pp.9-10.

의존하고 있지만, 창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들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던 과학적 인식들은 기존의 지식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이끌어낸 것이 아니었다. 과학의 진보를 낳은 창의적인 과정들은 무의식적인 것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부를 하는 일에 있어서도 자신의 감정을 읽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자기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처럼 감성지능(EQ)은 IQ가 가장 필요한 곳에서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활동이나 영역에서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능지수도 감성지능(EQ)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충분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지능지수와 가장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는 공부하는 것도 감성지능(EQ)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충분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지능지수와 가장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는 공부하는 것도 감성지능(EQ)의 도움이 없이는 어렵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즉 잘 참고 공부에 열중할 수 없는 사람이 공부를 잘 할 수 없을 것이며,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자기 동기부여 능력이 없을 경우에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지성과 감성을 대립하는 정신활동으로 이해하는 지금까지의 이론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머리와 가슴의 조화를 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감성지능(EQ)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발시켜야 한다.

현대 사회의 조류 속에서 성공적으로 적응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감성지능에 대한 연구이다. 인간성 상실을 예방하고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식교육은 물론 감성교육을 해야만 한다.

2. 감성지능이 미술교육에 주는 의미

1) 미술교육에서의 감성교육의 필요성

정서발달은 도덕적, 사회적 발달과 분리될 수 없다. 도덕적 인지적 능력의 발달은 애정이나 열정 등과 같은 적절한 정서의 개발과 결합된다. 합리성의 발달과 실현도 정서를 포함하고 정서도 합리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지적으로 계발된 사람, 특히 도덕적 사고가 발달된 사람의 경우에도 감정의 요소가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감정을 아는 것은 단순히 인지 수준의 것이 아니라 느낌을 포함한 감수성의 수준으로 EI의 핵심 개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정서 또는 감성지능은 지능지수나 다른 도덕적, 사회적 발달과 따로 떨어져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발되는 것이며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지성과 감성을 대립하는 정신 활동으로 이해하는 지금까지의 이론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머리와 가슴의 조화를 꾀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도 감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발시켜야 한다.²⁰⁾

따라서 감성교육은 인간의 감성능력을 개발시키고 확장시켜 지적인 성장을 더 용이하게 이끌면서 인간들이 지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총체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학생들에게 인간이 살아감으로 필요하고 힘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지적교육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고, 현재의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20) 전성수. 감성지능 계발을 위한 미술교육 방안. 한국초등교육. 1999. pp. 251-281.

2) 감성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

감성지능에 대해 제일 먼저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 과연 감성지능을 교육으로 계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니얼 골먼은 감성지능이 학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²¹⁾ 누구나 이 능력을 계발하여 지적인 잠재력과 유전성향이 어떻든 간에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감성지능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본다면 학생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며 안전하고 안정되어 있는지, 어른과 또래 집단 또는 다른 아이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교적인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낯선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에 대해 살피는 데서 출발한다.

감성지능의 교육은 정서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정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정서교육의 첫 단계이다. 정서는 상황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의해 정서 야기 요소를 파악하고 그 요소에 대한 평가나 사정을 적절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정서교육은 합리적 정서를 계발하고 표현하도록 하며 비합리적 정서를 합리적 사고에 의해 변화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감성교육은 바람직한 특성의 정서적 내용을 가진 대상에 대해 직접적인 인식 작용을 일깨우는 일로 가능하다. 그것의 가장 빠른 길은 예술교육을 강화하는 길일 것이다. 정서는 방임된 상태에서는 세련되지 않으며 모든 생활과 모든 교과가 정서와 관련되지만, 정서와 가장 관련이 깊고 자아의 표현인 예술교육으로 효과적인 정서교육을 할 수 있다. 예술작품은 세련된 인간 감정의 광맥으로서 정의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자극원이며 이를 이해하고 지각하고 감상하며 표현하는 것은 정서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길일 것이다.²²⁾

감성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고 표현된 정서를 정

21) 대니얼 골먼, 황태호 역, 감성지능(EQ) 상, 1997, p.13

22) 한명희, 도덕적 요인으로서의 정서의 역할과 교육, 교육학 연구, 1979 pp.113-118

확히 이해하게 하는 자기표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감성지능은 정서나 감성과 관련되고 미술을 또한 정서나 감성과 직결되는 교과이다. 미술은 아이들 누구나 일찍부터 즐겁게 잘 할 수 있는 자기표현의 길이다. 그리기를 어려워하고 싫어한다면 그것은 자기표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외적인 문제 때문이다. 내면의 표출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경험의 상호교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읽을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예술작품의 내면화와 미적 경험을 통해 효율적인 정서교육을 할 수 있다. 예술의 공통점은 인간 내부의식의 표현에 있으며, 진리나 인지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고 의사교환이 가능한 하나의 의미이기 때문에, 예술작품에는 인간의 느낌, 정서, 가치, 사고 등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 이런 예술작품을 지각하고 감상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아는 것이며, 감성과 일치된 실존의 의미적 전달로 느낌과 인지가 하나가된 경지이다.

예술작품은 인간존재의 성격을 가치적인 정서를 가지고 표현한 것이므로 우리는 이런 예술작품의 이해, 표현과 감상을 통해 예술가의 정서와 이미지, 자신의 정서와 이미지를 보고 체험하게 되고 자신의 정서를 승화시키고 세련되게 하며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술은 감성지능의 감수성이나 정서와 직결되고, 우뇌의 공간 지각력이나 형태력, 직관력, 창의력 등과 직결되는 교과이기 때문에 감성지능을 계발하는 아주 효율적인 교과임에 분명하다.

3) 미술활동을 통한 감성교육

감성은 객관적이거나 실재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신이라 할 수 있다. 감

성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감각을 매개로 하여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감성과 관련하여 EQ 또는 감성지능이(Emotional Itelligence)이라는 말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감성지능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이해력,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 이입능력,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자기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 인간관계 능력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감성지능은 예술교육을 통해서 매우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특히 미술은 자기표현과 감상 등을 통해 감성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교과이다.

감상을 함양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학생이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술 교육은 오늘날 학교 미술교육에서 결여되고 있는 감성적, 지성적 결핍을 미술교과를 통하여 충족할 수 있고 좌 우뇌의 균형 있는 발달, 즉 지성과 감성이 원만하게 조화된 인간모습을 표현하고 새로운 창조적 표현이나 삶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미술활동을 통해 발달되는 정서. 감성에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술활동은 정서적인 만족감을 준다. 아동들은 미술교육에 자유롭게 참여 하면서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느끼고, 자기 작품에 긍지를 갖게 되어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색상, 선, 형태로 표현해 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풍부한 감성과 심미감을 기른다. 그리고 찰흙 빚기, 종이 찢어 붙이기 등의 미술활동을 하면서 불안, 질투, 긴장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시키고, 또한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학습한다. 이와 같이 작품 창조를 통하여 유아의 능력과 자부심이 증진되며 이러한 미술교육으로서 얻어지는 성취감은 아동의 정서 발달을 높여준다.

둘째, 미술활동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다. 아동은 미술활동을 통해 또래와 상호작용으로 사회성의 발달을 가져오고, 또래들과 작업을 하고 협동하

고 나누어 갖는 기술을 발달시킨다, 또한 아동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작업이나 작품 감상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하며, 협동하는 미술활동은 공동체 의식도 형성하게 된다.

셋째, 미술활동은 아동의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의 수단이 된다. 언어능력이 미발달된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그림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표현한 작품을 설명하고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넷째, 미술활동은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동들은 미술작업을 하면서 배열하고 풀칠하고 채색하고 형태를 만드는 등의 작업을 통해 어떤 색을 어떻게 칠하거나 붙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방법을 배우게 되며 미술작업과정은 기쁨, 슬픔 등 여러 형태의 감정과 만나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미술활동은 일상에서 쌓인 나쁜 감정을 배출하여 정서적인 안정을 찾게 하며, 긴장해소와 어려움의 해결방안을 찾게 한다.

다섯째, 미술활동은 부모나 교사가 아동을 이해하고 돕는데 도움을 준다. 아동의 작품은 시각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경험한 것을 표현한 것이므로, 아동의 생각이나 개념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4) 미술을 통한 감성지능 계발

미술교육이 감성지능과 어떤 관련성이 있고 미술교육이 감성지능을 효과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감성지능의 다섯 가지 능력을 미술교육은 감성지능의 다섯 가지 능력인 자기 감정인식, 자기감정 조절, 자기 동기 부여, 타인감정 인식, 원만한 대인 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첫째, 미술교육은 자기감정을 인식하게 하는가? 미술은 어린이가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그대로 표현되고 어린이는 표현된 것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들은 자기의 감정, 개념, 상상 등을 미술을 통해 시각적, 공간적, 조형적으로 표현한다. 어린이들이 긁는 선, 어린이들이 선택하여 칠하는 색에는 어린이의 감정이 투영된다. 그래서 아동화로 어린이의 심리분석을 하게 되며 심리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들은 자기 자신을 언어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데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미술적 표현 매체로 직접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기감정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미술교육은 자기 감정조절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는 화가 나거나 슬플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낙서이다. 어린이들은 미술교육을 통해 쌓여있는 분노나 화 등을 그림을 그리면서 무엇인가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순화하여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화가 잔뜩 나 있다가도 낙서를 하면서, 자유롭게 선으로 마구 그림을 그리면서, 찰흙으로 빚으면서 어느 사이에 그 화는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미술은 어린이의 정서 함양에 아주 좋은 교과인 것이다.

셋째, 미술은 어린이의 자기 동기 부여 능력을 키워주는가? 감성지능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동기 부여 능력이다. 자기 동기부여는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미술수업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런 동기부여이다. 교사가 그 수업에서 동기부여만 성공하면 그 수업은 성공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미술은 어린이 스스로가 그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여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동기부여는 어린이들에게 스스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다. 즉 자기 동기를 갖게 하는 것이다. 동기부여를 통해 어린이들의 발상을 자극하게 된다. 동기부여는 어린이들 각자가 자기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동기가 부여되지 않고는 좋은 표현작품을 결코 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미술시간 마다 교사의 동기부여에 따라 자기 동기를 갖는 습관을 기르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기 동기부여 능력을 기르게 된다.

넷째, 미술교육에서는 감상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경험을 계속 할 수 있다. 미술이 자기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라면, 작품 감상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른 친구들이 표현해 놓은 작품에서 그 친구의 감정, 그 친구의 느낌, 그 친구의 의도를 읽는 연습을 계속하게 된다. 그러면서 감상을 통해 감정을 이입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마지막으로, 미술에는 정 오답이 없고 경쟁이 적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 특히 협동 작업을 통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미술은 개성적인 표현을 강조하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 서로 협동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미술교육은 미술 경험 자체가 본질적으로 감성지능(EQ)의 주요능력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다양한 미술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성지능(EQ)의 능력들이 길러질 수 있는 것이다.²³⁾

23) 이규선, 김동영, 전성수 ‘미술교육학 개론’ 1994. pp. 251-281

IV. 미술수업 모형제시

1. 프로그램의 기본방향

이에 재 개념화로서의 시각 문화와 미술교육 방안은 아래의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시각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어떻게 교육해 갈 것인가의 문제를 연구하는 측면, 둘째, 시각 문화에 노출에서 오는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병리현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의 연구이다. 후자의 경우는 인간 회복의 측면에서의 교육이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본인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적용하여 연구할 것이다. 즉 시각문화에 기초한 미술교육을 하되 시각문화에 노출에서 오는 병리현상을 해결하고자 인간성 회복의 측면에서 감성지능을 활용하여 자아정체성과 타인과 사회와의 소통을 중점으로 미술교육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 프로그램의 제시

① 자아 정체성 프로그램

<마음의 상자 열기>


마음의 상자열기에 나타난 감정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감정표현하기 미술 수업에서는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표출해봄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공감할 수 있는 미술 수업을 만들고자 한다. 마음의 상자를 주제로 감상하고 표현하고 소통하는 순서로 수업을 진행해 나간다. 학생들과 함께 감정표현방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활발한 질문과 응답으로 이론을 전개한다. 실기 활동 시 자신이 표현할 감정은 무엇이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계획을 세우고, 표현활동을 하도록 하며 다함께 감상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상호작용의 분위기를 만든다.

감정 표현에 대한 미술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표현능력을 길러 주며, 타인의 감정도 공감하며 이해할 수 있다. 감상수업 시 학습자는 교수자와의 질문과 응답을 통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내용과 관계된 개념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자신이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고 있는가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자기평가를 할 수 있다. 실기활동 시 브레인 스토밍을 통하여 학습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워크시트를 통하여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다.

<표 1> 마음의 상자 열기 학습지도안

차시	절차	학습활동		시간	지도자료	
		교사	학생		교사	학생
1차시 도입	학습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유발 - 감정을 표현한 작품을 보여주면서 표현한 방식이나 느낌이 어떤지 각자의 생각을 물어본다 - 감정표현 활동 - 작품제작에 앞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 작품을 감상한 후 작가들이 표현한 방식들과 느낀 감정을 이야기해 본다. -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감정을 다양한 방법을 	15분	PPT-예시 이미지 작품제작계획서	필기도구

		<p>정을 아크릴판에 주어진 재료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낸다.</p> <p>-학습목표 제시 -학습활동안내 -개별학습 협동학습 발표 감상</p>	<p>이용해 표현해 본다.</p> <p>- 학습목표 인지</p>			
2차시 전개	학습 활동	<p>-주제 파악 상자의 각 면에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선택한다.</p> <p>-표현하기 감정표현에 알맞은 재료를 선택하여 특성을 잘 살려 표현한다.</p>	<p>-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주제와 재료를 선택 한다</p> <p>- 선, 면, 덩어리 등의 재료적 속성을 이용하여 조형적으로 표현한 마음의 상자를 만든다</p> <p>- 나와 친구들의 마음의 상자들을 쌓아 디피해 본다.</p>	25분		실기도구
3차시 마무리	정리 및 감상	<p>-협동작품 발표 및 감상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면 친구와 표현의도를 이야기하면서 정리하게 한다, 작품을 발표하고 감상한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나 표현방법 의도 주제에 대해 질문한다.</p>	<p>-서로의 작품을 감상한다.</p> <p>-작품의 제작과정과 표현방법, 주제 등을 자유롭게 발표한다.</p> <p>- 작품 감상 기록지 쓰기</p>	10분		
참고 작품						

<사물로 자아표현하기>


사물로 자아표현하기 프로그램은 그림 속에 숨겨진 상징 이야기를 감상하고 상징성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자아를 표현한 작품을 감상한 후 작가들이 표현한 방식들과 느낀 감정을 이야기해 본다. 사물로 자아를 표현하는 것을 주제로 감상하고 표현하고 소통하는 순서로 수업을 진행해 나간다. 수업내용은 나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 혹은 물건을 수집하여 스크랩하여 발표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토대로 그는 누구일까, 친구들이 말해본다. 학생들과 함께 사물로 자아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활발한 질문과 응답으로 이론을 전개한다. 실기 활동 시 자신이 표현할 사물은 무엇이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계획을 세우고, 표현활동을 하도록 하며 다함께 감상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상호작용의 분위기를 만든다.

이 수업은 이미지와 사물의 상징성과 그것을 중심으로, 생기는 정체성을 알아본다. 즉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나와 타인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표 2> 사물로 자아표현하기 학습지도안

차시	절차	학습활동		시간	지도자	
		교사	학생		교사	학생
1차시 도입	학습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유발 -사물로 자아를 표현한 작품을 보여주면서 표현한 방식이나 느낌이 어떤지 각자의 생각을 물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자아를 표현한 작품을 감상한 후 작가들이 표현한 방식들과 느낀 감정을 이야기해 본다. 	15분	PPT-예시 이미지 작품제작계획서	필기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목표 제시 -학습활동안내 -개별학습 협동학습 발표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물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본다. - 학습목표 인지 			
2차시 전개	학습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파악 자신의 성격에 맞는 사물을 선택한다. -표현하기 자신의 특성에 알맞은 재료를 선택하여 특성을 잘 살려 표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주제와 재료를 선택한다 - 자신을 표현할 이미지와 물건을 수집한다. - 수집한 이미지와 물건으로 자신의 특성을 표현한 사물을 만든다 - 작품을 설치한다. 	2 5 분		실기 도구
3차시 마무리	정리 및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작품 발표 및 감상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면 친구와 표현의도를 이야기 하면서 정리하게 한다, 작품을 발표하고 감상한다. 작품만드는 과정이나 표현방법 의도 주제에 대해 질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의 작품을 감상한다. -작품의 제작과정과 표현방법, 주제 등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 작품 감상 기록지 쓰기 	1 0 분		
참고 작품						

<낙서상징화>

낙서상징화 프로그램은 낙서를 통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상징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낙서화가로 유명한 뱅크시처럼 그의 작품은 단순한 낙서에 지나지 않는다. 주로 정치, 사회, 환경, 자본주의, 반전과 평화 등의 주제를 통해 부조리한 세상을 고발하고 풍자하는 등 계몽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처럼 낙서는 행위 하는 예술이며, 낙서를 자기표현의 수단이자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처럼 이 프로그램에서도 낙서를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낙서패턴을 만들어 표현해 보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수업내용은 먼저 상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낙서로 자아를 표현한 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한 후 작가들이 표현한 방식들과 주제에 관해 느낀 점을 한명씩 발표해본다. 실기 활동 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주제와 재료를 선택한다. 그리고 낙서패턴을 만들어 그 위에 여러 가지 재료의 특징을 살려 나만의 독창적인 낙서패턴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제작과정과 표현방법 주제 등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친구가 표현하는 방법을 어떤 낙서상징과 패턴을 사용하였는지 생각해 본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낙서라는 자유로운 활동을 함으로써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아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표 3> 낙서상징화 학습지도안

차시	절차	학습활동		시간	지도자료	
		교사	학생		교사	학생
1차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유발 - 학생들이 현재 알고 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25분	PPT-에시이 미지	필기 도구

	<p>학습과제 제시</p>	<p>는 상징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스해링, 바스키아 등 낙서로 자아를 표현한 작품을 보여주면서 표현한 방식이나 느낌이 어떤지 각자의 생각을 물어본다. <p>-학습목표 제시 -학습활동안내 -개별학습 협동학습 발표 감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한 후 작가들이 표현한 방식들과 주제에 관해 느낀 점을 한명씩 발표해본다. - 학습목표 인지 		<p>작품제작계획서</p>	
<p>2차시 전개</p>	<p>학습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파악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낙서패턴을 만든다. -표현하기 나를 주제로 마음이나 기분을 표출할 수 있도록 표현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주제와 재료를 선택한다 -낙서패턴을 만들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재료의 특징을 살려 나만의 독창적인 낙서패턴을 만든다. -낙서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p>50분</p>		<p>실기 도구</p>
<p>3차시 마무리</p>	<p>정리 및 감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작품 발표 및 감상 작품이 완성되면 친구와 표현의도를 이야기하면서 정리하게 한다. 작품을 발표하고 감상한다. 작품 만드는 과정이나 표현방법 의도 주제에 대해 질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의 작품을 감상한다. -작품의 제작과정과 표현방법 주제등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 작품 감상 기록지 쓰기 	<p>15분</p>		
<p>참고 작품</p>						

<몸으로 표현하기>

몸으로 표현하기 프로그램은 몸을 통해 나누는 대화의 다양한 사례와 방법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우리의 몸은 말을 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며 효과적인 소통의 수단이다. 그래서 몸을 통해 의사 표현을 하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내기도 한다. 때로 이것은 말로 하는 것보다 더 큰 울림을 준다.

몸으로 행하는 소통의 한 수단인 퍼포먼스는 시대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수단으로서 형식을 갖추고 공연되기도 한다. 또한 회화, 조소와 같은 시각조형 예술의 경계를 넘어 문학, 무용, 음악, 연극 등과 어우러짐으로써 통합적인 일상의 삶을 표현하는 데 적절할 때도 많다.

이렇게 총체 예술로서의 퍼포먼스가 우리 사회에서 말하기와 주장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그 행위로서 복잡하게 움직이는 오늘날의 세상을 더욱 더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내용은 먼저 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몸을 표현한 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한 후 작가들이 표현한 방식들과 주제에 관해 느낀 점을 한명씩 발표해본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주제와 재료를 선택 한다. 주제에 맞는 몸을 이용하여 퍼포먼스를 한다.

퍼포먼스를 활용하여 사회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몸이라는 소재를 통해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몸의 영역으로 확대시켜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표현 영역이 넓어지면 더욱 자유로워져 표현력이 풍부해 질것이다.

<표 4> 몸으로 표현하기 학습지도안

차시	절차	학습활동		시간	지도자료	
		교사	학생		교사	학생
1차시 도입	학습 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유발 - 학생들이 몸의 표현방법에 대해서 질문한다. - 다양한 방법으로 몸을 표현한 작가들 작품을 보여주면서 표현한 방식이나 느낌이 어떤지 각자의 생각을 물어본다. - 몸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자세히 설명 한다 -학습목표 제시 -학습활동안내 -개별학습 협동학습 발표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한다. - 몸을 표현한 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한 후 작가들이 표현한 방식들과 주제에 관해 느낀 점을 한명씩 발표해본다. - 학습목표 인지 	25 분	PPT- 에시이 미지 작품제 작계획 서	필기 도구
2차시 전개	학 습 활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파악 자신의 특성을 몸을 통해 표현 한다 -표현하기 나의 특성을 몸의 퍼포먼스를 통해 나타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주제와 재료를 선택한다 - 주제에 맞는 몸을 이용하여 퍼포먼스를 한다. - 친구의 이미지를 떠올려보면서 성격이나 친구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50 분		실기 도구
3차시 마무 리	정리 및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작품 발표 및 감상 완성되면 친구와 표현의도를 이야기하면서 정리하게 한다. 작품을 발표하고 감상한다. 작품 만드는 과정이나 표현방법 의도 주제에 대해 질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의 작품을 감상한다. -작품의 제작과정과 표현방법 주제 등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 작품 감상 기록지 쓰기 	15 분		



<나의 이미지 북 만들기>

나의 이미지 북 만들기 프로그램은 우리는 평소에 수많은 이미지들을 만난다.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나만의 느낌이나 생각을 전달할 이미지 북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다.


수업 내용은 먼저 작가의 북 아트 작품들을 감상한 후 작가들이 표현한 방식들과 주제에 관해 느낀 점을 한명씩 발표해본다. 그리고 연상을 통하여 이미지를 찾는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북을 만든다.

서로의 작품을 감상한다. 작품의 제작과정과 표현방법 주제 등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친구가 만든 북 아트 작품을 감상하며 친구의 이미지를 떠올려보면서 성격이나 친구에 대한 느낌을 생각해 본다.

이미지 북을 만들다 보면 나만의 의미와 상징이 담겨 있는 이미지가 생겨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또한 나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아 정체성을 찾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표 5> 나의 이미지 북 만들기 학습지도안

차시	절차	학습활동		시간	지도자료	
		교사	학생		교사	학생
1차시 도입		◆ 동기유발		25 분	PPT- 예시이	필기 도구

	<p>학습 과제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의미와 상징이 담겨있는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을 여주면서 표현한 방식이나 느낌이 어떤지 각자의 생각을 물어본다. - 학습목표 제시 - 학습활동안내 - 개별학습 협동학습 발표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한 후 작가들이 표현한 방식들과 주제에 관해 느낀 점을 한 명씩 발표해본다. - 학습목표 인지 		<p>미지 작품제작계획서</p>	
<p>2차시 전개</p>	<p>학습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파악 나만의 느낌이나 생각을 전달할 이미지 북을 만든다. - 표현하기 나를 주제로 마음이나 기분을 표출할 수 있도록 표현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상을 통하여 이미지를 찾는다. - 이미지 북을 만든다. - 친구의 이미지를 떠올려보면서 성격이나 친구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p>5 0 분</p>		<p>실기 도구</p>
<p>3차시 마무리</p>	<p>정리 및 감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작품 발표 및 감상 이미지북이 완성되면 친구들과 표현의도를 이야기하면서 정리하게 한다. 작품을 발표하고 감상한다. 작품 만드는 과정이나 표현방법 의도 주제에 대해 질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의 작품을 감상한다. - 작품의 제작과정과 표현방법 주제 등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 작품 감상 기록지 쓰기 	<p>1 5 분</p>		
<p>참고 작품</p>					

② 타인과 사회와의 소통 프로그램

<포토폴라쥬>

포토폴라쥬 프로그램은 나의 얼굴과 친구의 얼굴 사진을 폴라쥬로 표현해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수업내용은 먼저 폴라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폴라쥬로 정체성이나 자신과 타인의 특징을 표현한 작품을 감상한 후 작가들이 표현한 방식들과 주제에 관해 느낀 점을 한명씩 발표해본다.

실기 활동 시 나와 친구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주제와 재료를 선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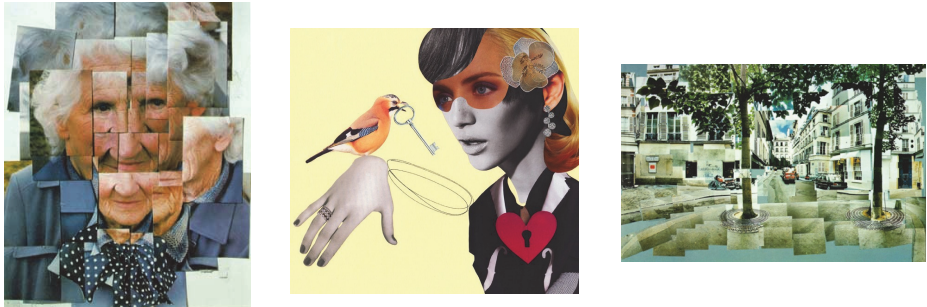
자신의 얼굴사진과 친구의 얼굴사진을 폴라쥬하여 하나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든다. 여러 가지 재료의 특징을 살려 포토폴라쥬 작품을 만든다.

친구의 이미지를 떠올려보면서 성격이나 친구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얼굴의 특징이나 성격 등 자신과 친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표 6> 포토폴라쥬 학습지도안

차시	절차	학습활동		시간	지도자료	
		교사	학생		교사	학생
1차시 도입	학습 과제 제시	◆ 동기유발 - 학생들이 현재 알고 있는 폴라쥬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한다. - 폴라쥬로 정체성이나 자신과 타인의 특징을 표현한 작품을 감상한다. - 학습목표 제시	- 폴라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 폴라쥬한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한 후 작가들이 표현한 방식들과 주제에 관해 느낀 점을 한명씩 발표해본	25 분	PPT- 에시이 미지 작품제 작계획 서	필기도 구

		-학습활동안내 -개별학습 협동학습 발표 감상	다. - 학습목표 인지			
2차시 전개	학습 활동	-주제과악 나의 특성과 친구의 특성을 조합하여 포토콜라주 작품을 만든다. -표현하기 나의 얼굴과 친구의 얼굴을 콜라주 하여 표현하게 한다.	-나와 친구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주제와 재료를 선택 한다 - 여러 가지 재료의 특징을 살려 포토콜라주 작품을 만든다. - 친구의 이미지를 떠올려보면서 성격이나 친구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50 분		실기도구
3차시 마무리	정리 및 감상	-협동작품 발표 및 감상 작품이 완성되면 친구와 표현의도를 이야기하면서 정리하게 한다. 작품을 발표하고 감상한다. 작품만드는 과정이나 표현방법 의도 주제에 대해 질문한다.	-서로의 작품을 감상한다. -작품의 제작과정과 표현방법 주제등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 작품 감상 기록지 쓰기	15 분		
참고 작품						

<얼굴이야기-가면>

가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면을 통해 평소 드러내지 않았던 자신의 내면을 자유롭게 표출하여 욕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 내용은 먼저 가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자화상을 표현한 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한 후 작가들이 표현한 방식들과 주제에 관해 느낀 점을 한명씩 발표해본다. 작가의 내면을 이해한다.

실기 활동 시 가면에 표현활동을 해봄으로써 입체표현에 대해 이해한다. 작가들처럼 자신의 마음상태를 가면에 표현해 봄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주제와 재료를 선택 한다. 가면을 만들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재료의 특징을 살려 나만의 독창적인 가면을 만든다.


친구와 가면을 바꿔서 가면의 반쪽을 친구의 이미지를 떠올려보면서 성격이나 친구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친구가 만든 가면을 감상하면서 친구와 함께 만든 가면에 대해 이야기 한다. 다른 친구들의 가면 이야기를 듣고, 친구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특징도 알 수 있고, 억눌러 있던 욕구를 표출할 수 있으며 친구가 나의 성격이나 특징을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하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표 7> 얼굴이야기-가면 학습지도안

차시	절차	학습활동		시간	지도자료	
		교사	학생		교사	학생
1차시 도입		◆ 동기유발 - 학생들이 현재 알고 있	- 가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2 5 분	PPT- 예시이	필기 도구

	학습 과제 제시	<p>는 가면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화상을 표현한 작가들 작품을 보여주면서 표현한 방식이나 느낌이 어떤지 각자의 생각을 물어본다. - 가면이 갖고 있는 의미를 페르소나를 통해 자세히 설명 한다 <p>-학습목표 제시 -학습활동안내 -개별학습 협동학습 발표 감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면이나 자화상을 표현한 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한 후 작가들이 표현한 방식들과 주제에 관해 느낀 점을 한명씩 발표해본다. - 학습목표 인지 		<p>미지</p> <p>작품제 작계획 서</p>	
2차시 전개	학습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과악 자유로운 가면의 형태로 내면이 담긴 가면을 만든다. -표현하기 <p>가면의 반쪽에만 나의얼굴을 표현하게 한다. 서로 가면을 바꾸어 나머지 반을 채워 완성한다. 나를 주제로 마음이나 기분을 표출할 수 있도록 표현해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주제와 재료를 선택한다 -가면을 만들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재료의 특징을 살려 나만의 독창적인 가면을 만든다. - 친구의 이미지를 떠올려보면서 성격이나 친구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50 분		실기 도구
3차시 마무리	정리 및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작품 발표 및 감상 <p>하나의 가면이 완성되면 친구와 표현의도를 이야기 하면서 정리하게 한다. 작품을 발표하고 감상한다. 작품 만드는 과정이나 표현방법 의도 주제에 대해 질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의 작품을 감상한다. -작품의 제작과정과 표현방법 주제등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 작품 감상 기록지 쓰기 	15 분		
참고 작품						

<공간속에서 함께 말하기>

공간속에서 함께 말하기 프로그램은 시각 문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주장을 시각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 간단한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미술적 가치를 알아본다.

평소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거나 우리가 이야기할 기회를 자주 갖지 못한다. 어른들이나 선생님과도 소통이 안 되는 점이 많다.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즉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장을 시각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을지 어른들이 우리의 주장을 이해 할 수 있을지 표현해보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수업내용은 먼저 환경미술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이론 수업 진행은 작가들이 표현한 방식들과 주제에 관해 느낀 점을 한명씩 발표해본다. 시각문화의 개념과 특징,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 환경미술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찾는다.

실기 활동 시 학교 안 바깥 공간을 탐색 한다. 표현할 수 있는 주제와 재료를 선택 한다. 자신의 주장을 시각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 독창적인 공간을 만든다. 공간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 속 우리들의 작품을 다함께 감상하고 평가한다.

<표 8> 공간속에서 함께 말하기 학습지도안

차시	절차	학습활동		시간	지도자료	
		교사	학생		교사	학생
1차시 도입		◆ 동기유발 - 학생들이 현재 알고 있는 생활 속 환경미술 의미	- 환경미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25분	PPT-예시이미지	필기 도구

	<p>학습 과제 제시</p> <p>에 대해서 질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들 작품을 보여주면서 공간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주제는 무엇인지 각자의 생각을 물어본다. <p>-학습목표 제시 -학습활동안내 -개별학습 협동학습 발표 감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들이 표현한 방식들과 주제에 관해 느낀 점을 한명씩 발표해본다. - 학습목표 인지 		<p>작품 제작 계획서</p>	
<p>2차시 전개</p>	<p>학습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과악 원래의 공간을 자신의 주제가 담긴 새로운 공간으로 만든다. -표현하기 주제에 맞는 표현방식으로 공간을 완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안 바깥 공간을 탐색 한다 - 표현할 수 있는 주제와 재료를 선택 한다 -독창적인 공간을 만든다. - 공간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p>50분</p>		<p>실기 도구</p>
<p>3차시 마무리</p>	<p>정리 및 감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작품 발표 및 감상 작품이 완성되면 친구와 표현의도를 이야기하면서 정리하게 한다. 작품을 발표하고 감상한다. 작품 만드는 과정이나 표현방법 의도 주제에 대해 질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의 작품을 감상한다. -작품의 제작과정과 표현방법 주제 등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 작품 감상 기록지 쓰기 	<p>15분</p>		
<p>참고 작품</p>					

<여성과 몸>

예부터 남자와 여자는 보는 방법이 달랐다. 오랫동안 세상의 중심에는 남자가 있었고, 여자는 대개 남자의 성적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여성의 권리가 신장하면서 이러한 상황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보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여성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는 수업 프로그램이다.

예술 작품에서 여성은 오랫동안 누드로 표현되어 왔으며 항상 선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 남성의 관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사진작가 신디 셔먼도 미술이 여성을 관능적인 볼거리로 다루는 것에 반발하여 유명한 예술작품을 패러디하여 비꼬는 작업을 선보였다. 최근에 와서 많은 여성 예술가가 활동하면서 이와 같이 여성의 시각에서 과거의 미술을 비판하는 활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감상수업으로 현대 많은 여성 작가들이 과거의 미술을 비판하듯이 우리도 작품을 감상하면서 비판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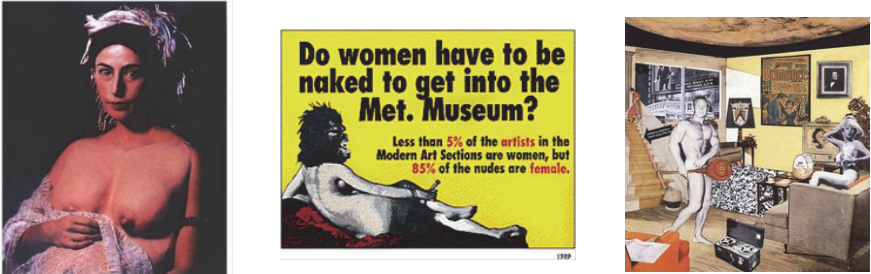
수업 내용은 먼저 여성의 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한 후 작가들이 표현한 방식들과 주제에 관해 느낀 점을 한명씩 발표해 본다.

다양한 문화와 시각매체 속에서의 여성의 모습을 감상한다.

<표 9> 여성과 몸 학습지도안

차시	절차	학습활동		시간	지도자료	
		교사	학생		교사	학생
1차시 도입		◆ 동기유발 - 여성의 몸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작가들 작품	- 여성의 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25분	PPT-에시이미지	필기도구

	<p>학습 과제 제시</p> <p>을 보여주면서 상징을 물어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욕망과 사회적 의미의 상징성을 설명한다. - 학습목표 제시 - 학습활동안내 - 개별학습 협동학습 발표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한 후 작가들이 표현한 방식들과 주제에 관해 느낀 점을 한명씩 발표해본다. - 학습목표 인지 		<p>작품제작 계획서</p>	
<p>2차시 전개</p>	<p>학습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파악 보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여성의 모습을 이해한다. - 감상하기 광고 속의 여자, 자신을 바라보는 여자의 모습을 감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문화와 시각 매체 속에서의 여성의 모습을 감상한다. 	<p>50분</p>		<p>실기도구</p>
<p>3차시 마무리</p>	<p>정리 및 감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및 감상 작품 속에 표현된 여성의 모습과 사회적 상징성을 이야기하면서 정리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감상한다. - 작품의 제작과정과 표현방법 주제 등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 작품 감상 기록지 쓰기 	<p>15분</p>		
<p>참고 작품</p>					

<다양한 문화 이해하기>

다양한 문화 이해하기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를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 문화 뿐 아니라 주변에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수업 내용은 먼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다양한 문화의 사진을 감상한 후 그 나라의 문화 방식들과 주제에 관해 느낀 점을 한명씩 발표해보므로써 다양한 문화를 이해한다.

감상 프로그램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 나라의 전통 의상이나 문화를 직접 만들어보고, 체험하며 소통해 보는 것도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표 10> 다양한 문화 이해하기 학습지도안

차시	절차	학습활동		시간	지도자료	
		교사	학생		교사	학생
1차시 도입	학습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유발 -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질문한다. - 다양한 문화를 표현한 작가들 작품을 보여주면서 표현한 방식이나 느낌이 어떤지 각자의 생각을 물어본다. - 학습목표 제시 - 학습활동안내 - 개별학습 협동학습 발표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 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한 후 작가들이 표현한 방식들과 주제에 관해 느낀 점을 한명씩 발표해본다. - 학습목표 인지 	25분	PPT-에시이미지 작품제작계획서	필기 도구

2차시 전개	학 습 활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파악 다양한 문화를 표현해본다 - 감상하기 다양한 문화를 감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문화를 이해한다. 	5 0 분		실기 도구
3차시 마무 리	정 리 및 감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및 감상 작품 속에 표현된 다양한 문화의 상징성을 이야기하면서 정리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의 작품을 감상한다. - 작품의 제작과정과 표현방법 주제 등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 작품 감상 기록지 쓰기 	1 5 분		
참 고 작 품						

V. 분석 및 해석

1. 연구방향

연구 대상은 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을 마친 후 자기 평가서를 작성하여 학생들의 결과를 알아보았다.

연구 방법은 시각문화에 기초한 미술수업모형을 만들기 위해 소집단 참여 관찰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수업에 참여하고 자기 평가서를 작성하여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시각문화의 이해를 하였는지, 자아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지 결과를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질적 방법론의 참여 관찰 방법으로 본 주제에서 새로운 가치를 이끌어내었는지 확인해본다.

그러나 한계점으로는 또한 자기평가서 작성 시 개인별 기분이나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답이 2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2개의 프로그램만을 가지고 실시하였기에 학생들의 변화를 알아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며 그 효과성을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미술수업모형은 자아정체성 탐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타인과 사회와의 소통을 중심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자아정체성 프로그램과 타인과 사회와의 소통 프로그램의 목적은 모두 인간회복을 공통점으로 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병폐로 자아와 타인, 사회와의 단절을 문제로 보고, 미술활동을 통해 소통한다는 점이 같은 맥락으로 흐른다.

자아정체성 프로그램으로는 <마음의 상자 열기>, <낙서상징화>, <사물로 자아 표현하기>, <몸으로 표현하기>, <나의 이미지북 만들기>가 있다. 타인과 사회와의 소통 프로그램으로는 <포토플라주>, <얼굴이야기-가면>, <공간속에서 함께 말하기>, <여성과 몸>, <다양한 문화 이해하기>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아정체성 프로그램으로는 <마음의 상자열기>와 타인과 사

회와의 소통프로그램으로는 <포토폴라주>를 분석하였다.

교사는 학습이 자기 주도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매체 활용과 수업계획에 있어서의 융통성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교수 학습 방법으로는 첫째,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활용한다. 둘째,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시범, 강의, 개별 작업 및 협동 작업, 게임, 현장 견학, 극화, 토론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한다. 셋째,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과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발문과 개방적 질문을 적극 활용한다. 넷째, 정보통신 기술과 사진, 영상, 멀티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인다. 다섯째, 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의 미술 자료와 문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 자아정체성 프로그램

자아정체성 프로그램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현재 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마음의 상자열기> 프로그램은 상자에 자신의 다양한 감정 상태를 표현해보는 것이다. 이로써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 수 있고, 그것을 표현해봄으로써 감정욕구를 표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작업을 마친 후 친구의 작업을 함께 평가해 봄으로써 타인의 감정 상태를 이해해 보며, 친구는 감정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본다.

자기 평가서를 작성하여 자아의 감정을 얼마나 이해하였는지 평가하였다. 자기평가서의 평가항목으로는 자아의 감정인식, 자아의 감정 이해력, 자아의 감정 표현력, 타인의 감정인식, 작업 흥미도로 구성하였다.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감정표현 워크시트를 작성해 봄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표 17> 마음의 상자열기 자기평가서

- 1) 자신이 표현한 감정은 무엇인가?
- 2)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였는가?
- 3) 감정에 맞는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 4) 표현한 후에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가?
- 5) 감정을 표현한 다른 사람의 그림을 감상하고 작품에 표현된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가?

<표 18> 감정표현 워크시트

* 문득 찾아드는 감정들을 적어보자.

■ 지금 나의 감정은?

예) “심란함” (주제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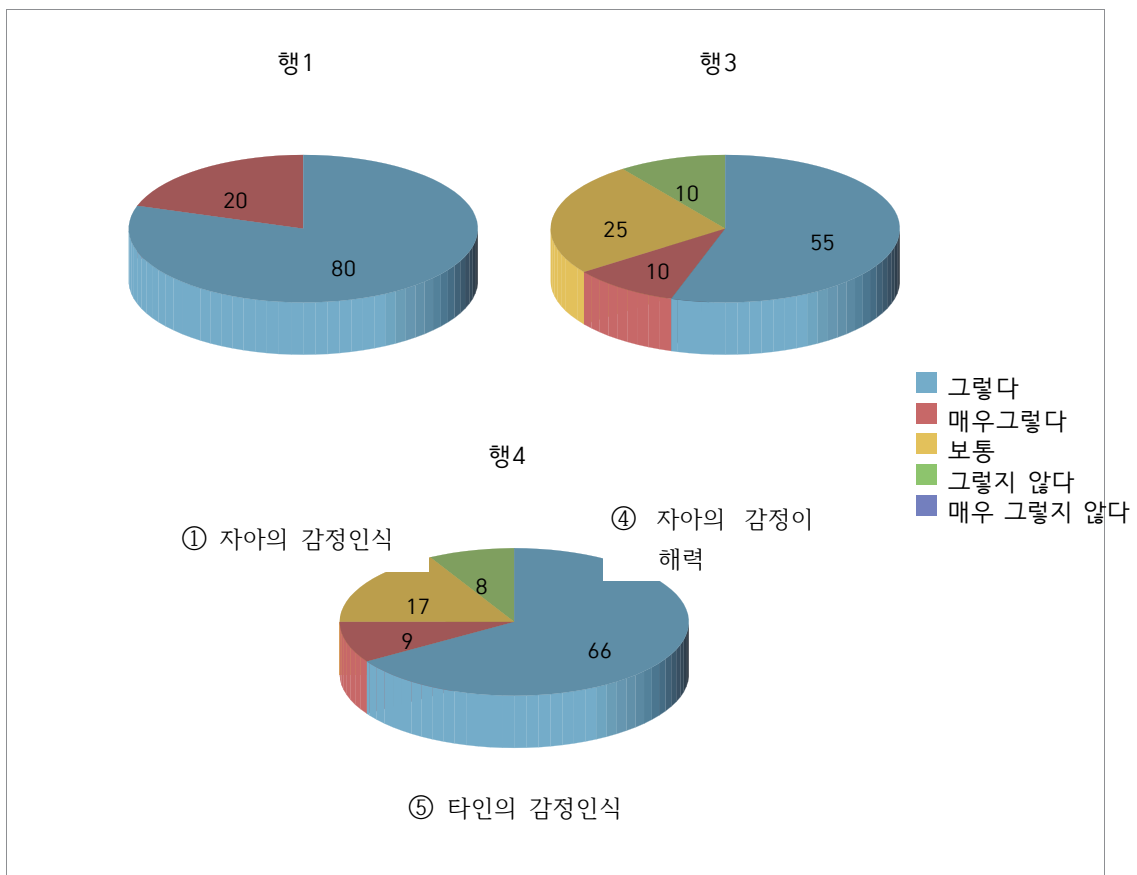
- ① 언제? 시험이 끝난 후
- ② 어디서? 내방에 혼자 있을 때
- ③ 어떻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 어떤 재료가 나의 감정을 전달하기 쉬울까?

(표현 재료와 방법 탐색)

예) 크레파스, 펜, 사인펜, 수채물감, 붓과 먹....

날카로운 선, 부드러운 선, 퍼지는 색....



그 결과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으며, 제대로 표출하는 학생이 있는 그룹과 반면에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있는 그룹으로 나뉘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제대로 표출한 학생이 72%로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많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자기평가서 항목을 ①번 항목은 자아 감정인식, ②③번 항목은 자아의 감정 표현력, ④번 항목은 자아의 감정 이해력, ⑤번 항목은 타인의 감정인식 능력으로 나누었다.

②, ③번 항목의 자아의 감정표현력은 학생들의 실기 수업 관찰과 자기평가

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수업 관찰 시 자아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학생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있으며, 감정을 이해하여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을 표현을 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색과 굵기와 표현방법을 다르게 하였다. 그러나 자아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학생은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자아의 감정이해력이 좋은 학생은 활동 후에 조금 더 자신의 자세한 감정과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라고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또한 활동을 하면서 현재의 힘든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게 되어 긍정적으로 개선해보려는 의지를 보이는 의견도 있었다.

타인의 감정인식이 좋은 학생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타인의 감정인식이 좋지 않은 학생은 친구가 표현한 감정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라고 의견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자아 정서인식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자신을 쉽게 표현할 수 있었으나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 하고 있는 학생은 자신의 특징을 쉽게 표현하지 못 하였다. 자신의 특징이나 성격 등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정체성 발견이라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감정표현 학생작품

<p><그림 2-1> 기쁜 감정</p>	<p><그림 2-2> 화난 감정</p>
	
<p><그림 2-3> 우울한 감정</p>	<p><그림 2-3> 두려운 감정</p>
	
<p><그림 2-4> 열정적인 감정</p>	<p><그림 2-5> 답답한 감정</p>
	

<그림 4> 마음의 상자열기 학생작품

<그림 4-1> - <그림 4-2>



<그림 4-3> - <그림 4-4>



<그림 4-5> - <그림 4-6>



3. 타인과 사회와의 소통 프로그램

타인과 사회와의 소통 프로그램은 타인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사회와의 소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포토콜라주 프로그램>은 나의 이미지와 친구의 반쪽 이미지를 사용하여 콜라주를 해보는 포토콜라주 프로그램이다.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고, 친구의 특징이나 성격을 이해하여 표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작업을 마친 후 자신이 표현한 것을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나는 나 자신과 친구를 잘 이해하는지, 그리고 친구는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자기 평가서를 작성하여 시각문화를 이해하고 그 자료를 잘 활용하여 표현하였는지, 자아와 타인의 관계를 얼마나 이해했는가를 평가하였다. 자기평가서의 평가항목으로는 활동 흥미도, 자아 이해도, 시각문화자료의 이해도와 활용도, 만족도로 평가하였다.

<표 13> 포토콜라주 자기평가서

자기 평가지			
1. 이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흥미를 느꼈는가?			
많이□	보통□	적게□	매우 적게□
2.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3. 새롭게 시도한 표현 방법이나 재료는 무엇인가?			
4. 나의 작품에서 가장 잘 된 점은 무엇인가?			

활동 흥미도와 만족도는 높아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자신과 타인의 특징의 이해도가 높은 학생이 67%로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자기평가서 항목을 ①번 항목은 활동흥미도, ②번 항목은 자아이해도, ③번 항목은 시각문화 자료의 이해도와 활용도, ④번, ⑤번 항목은 타인과의 이해도, ⑥번 항목은 만족도로 나누었다.

②, ③, ④, ⑤번 항목은 학생들의 실기 수업 관찰과 자기평가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실기 수업 관찰 시 자아이해도가 높은 학생은 자신의 특징이나 성격을 잘 알고 있으며, 쉽게 파악하며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자신의 특징을 외부의 모습은 밝지만 내면의 모습은 어둡거나 복잡한 모습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학생이 다수였다. 그러나 자아이해도가 낮은 학생은 자신의 특징이나 성격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특징을 설명하지 못하며 복잡하다거나 잘 모르겠다. 라고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

시각문화 자료의 이해도와 활용도가 높은 학생은 자신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시각문화 자료를 찾고, 고민하며 표현하려고 하였다. 자신의 특징에 맞는 표현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시각문화 자료의 이해도와 활용도가 낮은 학생은 자신의 특징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재료의 사용에서도 제한되어 다양한 표현방법을 찾지 못하였다.

타인과의 이해도가 높은 학생은 먼저 자신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표현에 있어서도 자신과 친구의 얼굴을 자연스럽게 혼합시켜서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를 잘 나타내었다. 그러나 타인과의 이해도가 낮은 학생은 자신의 특징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았다.

또한 친구와 자신의 얼굴을 자연스럽게 혼합해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어디 부분을 선뜻 먼저 그럴지 어려워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타인의 감정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과 타인의 특징의 이해도가 높은 학생은 표현을 쉽게 잘 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학생은 잘 표현하지 못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학생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 알게 되었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학생이 더욱 많았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포토콜라주 학생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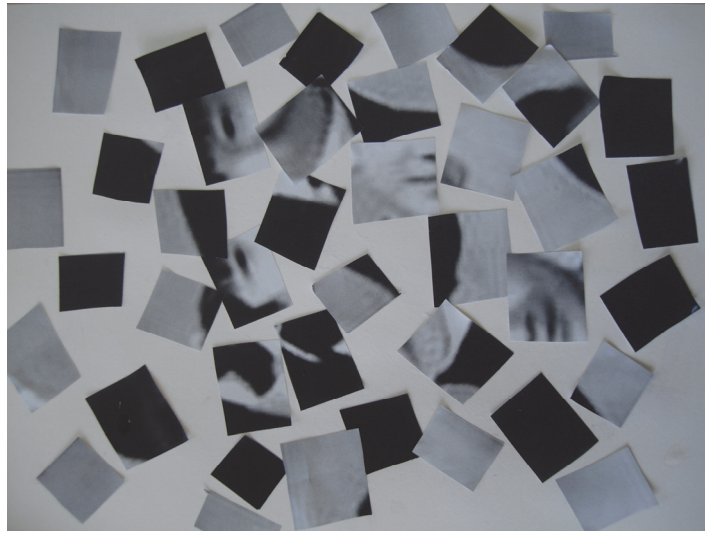
<그림 5-1> - <그림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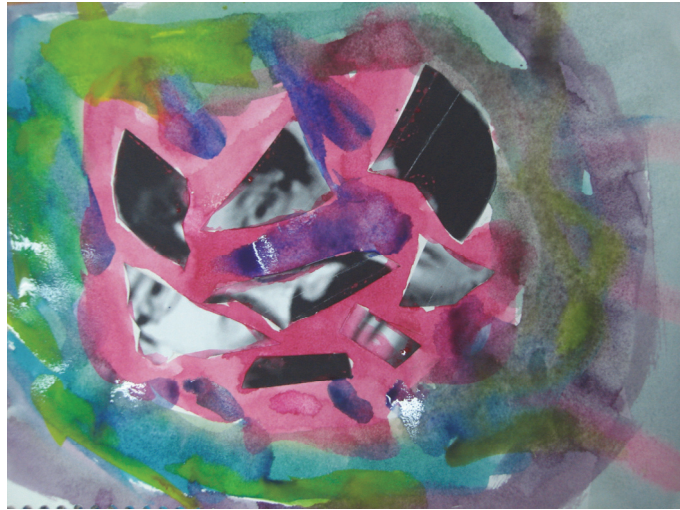
<그림 5-3> - <그림 5-4>



<그림 5-5> - <그림 5-6>



<그림 5-7> - <그림 5-8>



<그림 5-9> - <그림 5-10>



<그림 5-11> - <그림 5-12>



VI. 결론

감성지능(EQ)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며, 자기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으며,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런 감성지능(EQ)은 IQ만으로 인간을 평가할 수 없으며, IQ가 높다고 인생의 행복이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그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래서 요즘 들어 감성지능(EQ)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이러한 감성지능(EQ)은 예술교육을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계발 할 수 있으며, 특히 미술은 자기표현과 감상 등을 통해 감성지능(EQ)을 계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교과이다. 감성지능(EQ)을 높이는 미술교육의 기본 관점은 아동에게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표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에게 주제, 기법, 재료 등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 아동의 미적 안목을 높이고 미술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창의력을 높이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법이나 재료 중심이기보다는 아동이 직접 경험한 것에서 느낌을 구체화하게 하고 자기 감정을 분명하게 하며, 표현을 통해 그런 감정들이 바로 표현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감상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주 읽도록 하며, 협동 작업을 강화하여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의논하면서 활동하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

지능은 높는데 정서지능이 낮은 경우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된다. 타인의 고통과 슬픔은 아랑곳없이 자신의 이익과 만족만을 취하려 한다. 또한 공격성과 폭력성이 높고 타인의 감정을 읽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낮다. 이러한 모든 결과에서 이정보다 정서를 우선해서 키워야 하며 IQ를 높이는 영재교

육보다는 올바른 감성을 키워주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정서교육이 아이의 먼 훗날까지를 생각했을 때 훨씬 중요하다.

이런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여 감성적인 측면에 대하여 소홀하게 생각하고 인지적 능력을 강조함에 따라 다른 능력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고 결국 전인적 발달을 저해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교육은 입시위주,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감성교육과 정서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며, 감성을 개발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가정과 학교 및 교육 현장에서는 아동들의 감성적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동들로 하여금 각자의 고유한 재능을 제대로 찾아내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위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감성미술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내면의 생각표현, 상상력 자극, 타인을 배려한 의사소통, 타인의 생각이나 느낌의 습득과 이해, 자신의 적극적인 생각 표현, 자발적인 참여로 인한 자신감과 성취감 형성 등 감성의 함양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선행조사와 문헌연구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실제로 적용하였으나 감성지능의 특성상 객관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점과 장기적으로의 효과를 증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식의 영역들과 통합하고 감성미술교육이 학생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교육현장에서 활용하여 더욱 정교하게 수렴되어 지속적인 감성미술교육이 이루어질 것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강태희(2007). 현대미술과 시각문화. 서울. 눈빛.
- 고숙자 외(2003). 미술교육 이론의 탐색. 서울: 예경.
- 교육과학기술부(2007).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V).
- 교육과학기술부(제 2007-79호). 제 7차 중학교 교육과정- 미술과 교육과정
- 김광자(1993). 교수·학습방법론. 서울: 학문사.
- 김삼량(2000). 미술교육개론. 서울: 미진사.
- 김정(1999). 미술교육의 모든 것. 서울: 예경.
- 김용선(1997). EQ, 감성지수와 이성. 서울: 민중.
- 김현경 외(1998). 감성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다음세대.
- 로웬펠드·브리테인,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역 (2008).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미진사. 서울
- 문용린(2011). 문용린 교수의 정서지능 강의. 서울: 예경.
- 문용린(1997). 전서지능 EQ중진을 위한 정서교육 활동. 서울: 학지사.
- 박정애(2008). 의미 만들기의 미술. 시공미술. 서울.
- 이규선, 김동영, 전성수 (1997). 미술교육학개론 서울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서울: 교육과학사.
- 전성수 외(1999). 마음을 여는 미술활동. 서울: 예경.
- 전성수(1994). 미술이해 지도의 방안 연구 I. 사향미술교육논총.
- 전성수(1999). 감성지능 계발을 위한 미술교육 방안
- 대니얼 골먼. 황태호역(1997). 감성지능 (상. 하). 서울: 비전코리아.

아이스너(2001).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서울: 예경.
니콜라스 미르조예프(2009). 비주얼 컬처의 모든 것. 서울. 영은문화
로웬펠드. 브리테인(1993).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 미진사.

<논문>

배경주(2008). 미술교육을 통한 감성지능의 계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은영(2003). 감성지능(EQ)증진을 위한 미술교육 방안 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현오(2002).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한 미술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조빈서(2004). 미술교육을 통한 감성지능(EQ)의 신장 방안.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태희(1998).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한 교수 학습 활동 개발 및 효과 분석: 개인적 지능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최동령(2005). 청소년기 미술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청구 논문.

<학술지>

김황기(2003). 시각문화 미술교육에 대한 고찰. 미술교육 논총
이부연(2010). 시각문화의 발달에서 오는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으로서의 미술교육 방안 연구. 예술교육연구 제8권 제1호
이수경(1997). 아동의 감성지능계발을 위한 교육의 미술적 접근. 국내학술기
사.

ABSTRACT

Middle School Art Education Plan for the Improvement of Sensitivity Intellect

Lee Ye So Dam

Major in Fine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If the problems to be appeared in this digital times are seen as the natural environment destruction, the loss of home functions, the social dismantlement, the cyber addiction and social maladjustment, the cyber terror attacks, the crisis of non-control, the loss of human dignity and the crisis of values, we should refine our feelings and enhance our emotions on the basis of sensitive education via the art education in order to prepare against such problems.

It is clear that because the art is the subject directly connecting to the sensitivity or emotions in the emotion intelligence, and to the space perception ability, the shape perception ability, the intuition and the creativity in the right brain, so the art is a subject developing the sensitive intelligence very efficientl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some programs to enhance children's emotion intelligence and sensitivity intelligence through the art education.

In the section of Introduction, this study proposed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is study, investigated current art education and the representative problems of learning by rote, and then explained main concepts of emotion intelligence, the relation between the art and the emotion intelligence, and the meaning about the emotion intelligence's influence on the art education, and subsequently suggested an art program for developing the emotion intelligence. The proposed art class model was composed of an educational program for exploring the self identity and the other educational program focusing on the learner's communication with others and the society.

The both programs have the common purpose pursuing the restoration of humanity.

The both programs are developed in the same context in that they commonly consider the severance from the self, the other and the society as the modern society's ill, and they communicate with the others and the society through some art activities.

The self-identity exploring program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classes: <Open the mind box>, <Graffiti-Symbolic Painting>, <Express the Self with Things>, <Express the Emotion with the Body>, <Make My Image Book>. The communication with others and the society program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classes: <The Photo Collage>, <The Face Story-Mask>, <Talk Together in A Space>, <The Woman & The Body>, <Understand Various Cultures>.

This study carried out the research class targeting the 3rd-grade students in Dong-Seong Middle School located in Jongno-gu, Seoul.

<Open the Mind Box>, a class of self identity-exploring program and the society program, <The Photo Collage>, a class of communication with others and the society program were applied to their art classes and their results were analyzed.

This study designed the proposed program through a precedent research and the literature review. Although the suggested program was applied to real art classes, but found that this study had limits to prove the expected effects in the long term. But the art education developing the emotion intelligence will develop the sensitive power, so will be helpful in restoring the humanity. Therefore, the future studies should begin from studying how the art activities utilizing the sensitivity intelligence influences on the emotional refinement, and what problems exist in the visualization culture, and what art education course should solve the problem, and should expand their research scopes. Especially, it is my interest to research the art education around the both concepts of self-identity and communication with the society. My goal is to research art education course to help wandering teenagers in establishing their egos by utilizing the art education's healing ability.

Hence, I expect that the suggested programs in this study will be more utilized and refined more elaborately in the education field in the future and they can effectively draw out the educational values of art education as a sensitive education.